



근대 철학 핵심 가이드:
이성의 시대를 열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근대철학 핵심 가이드: 이성의 시대를 열다

우연성, 시간, 인생의 불투명성 등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 한 근대철학의 특징을 알아본다. 근대 안에 존재한 근대성의 타자와 인간 중심주의적 특징도 살펴본다.

학습 목표

- 근대 철학의 이성 중심주의적 특징
- 근대 안에 존재한 근대성의 타자
- 근대 철학의 인간 중심주의적 특징

강사 소개

• 이정우

파이데이아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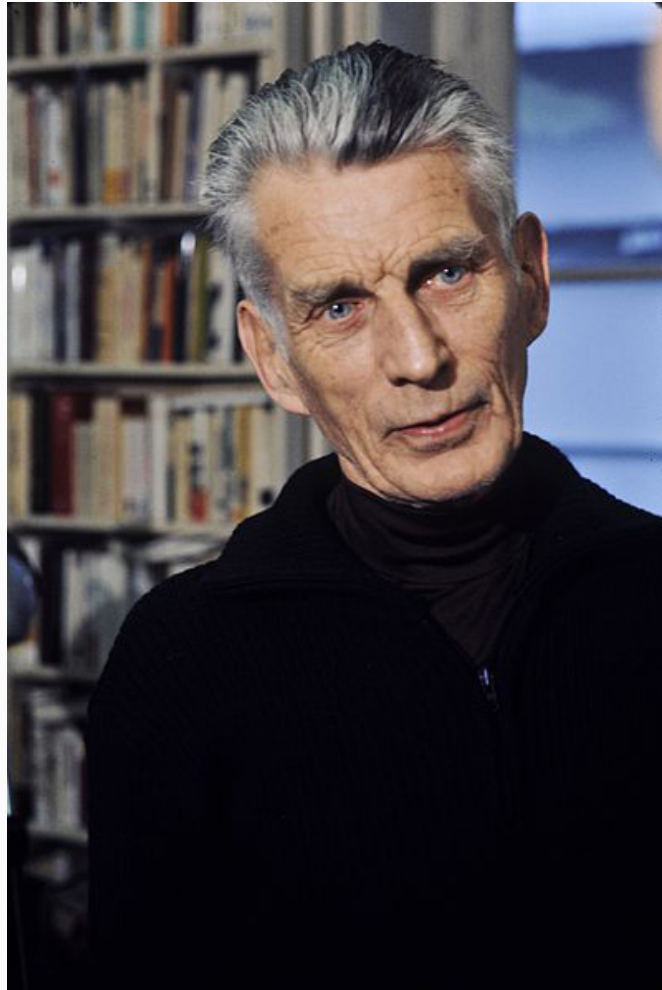
철학자. 경희 사이버대 교수. 들뢰즈 <리좀 총서> 편집인. 저서 『천하나의 고원』 『사건의 철학(삶, 죽음, 운명)』 『세계 철학사』 외 다수

강의 보기



- 제목 : 근대철학 핵심 가이드: 이성의 시대를 열다
- 강사 : 이정우 (파이데이아 학장)
- 구성 : 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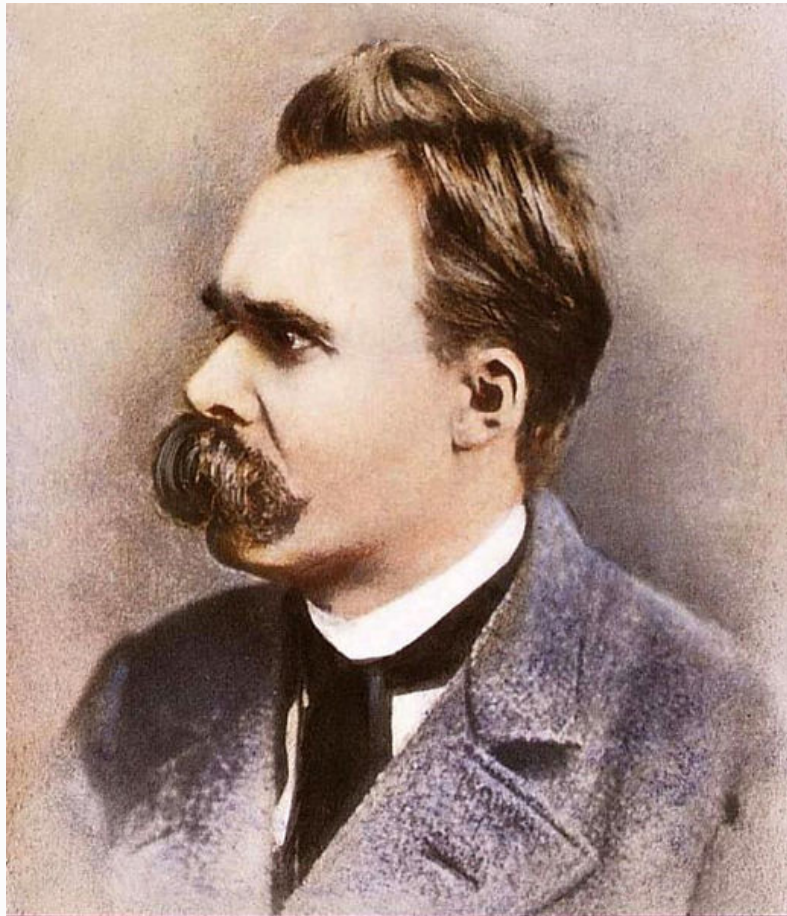
지식 노트



베케트(Beckett, 1906~1989)

아일랜드 출생의 프랑스 소설가, 극작가. 부조리극 작가로 명성을 얻었으며 1953년에 초연된 『고도를 기다리며』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지식 노트



니체(Nietzsche, 1844~1900)

20세기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의 철학자, 시인. 기독교적 도덕주의를 배격하고 실존주의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 『비극의 탄생』,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있다.

지식 노트



훔(David Hume, 1711~1776)

영국의 철학자, 역사가. 로크의 경험론적 인식론을 계승한 철저한 경험론의 입장에서 귀납 논증과 인과 관계의 필연성을 비판하였다. 그의 사상은 20세기 논리 실증주의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강의 노트

17세기는 중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추구하던 시기. 20세기는 탈중세로 가능해진 근대를 극복하는 시대였다.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서 지금까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대적 사유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20세기는 중세를 극복하고자 했던 17세기의 또 다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에는 다양한 철학적 흐름이 만들어졌다

예) 형이상학, 현상학, 해석학, 맑시즘,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과학 철학 등

오늘날의 철학은 20세기에 이루어진 여러 방법론과 관점들을 전제로 하여 서로 얽혀 있다.

→ 현대 철학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

근대 철학의 특징은 단순히 말하면 삶의 우연성, 다양성, 불투명성 등을 인간의 이성으로 극복하고 해소하려 한 것이다.

근대 철학: 이성 중심주의 철학

오늘날의 철학과 일반 사상에서는 내부와 외부, 내부화와 외부화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내부화, 외부화라는 개념은 쉽게 말해 존재들 간의 선 굻기라고 요약할 수 있다.

내부, 외부와 관계가 있는 개념으로 타자, 동일자라는 개념이 있다. 내부화는 어떤 중심이 자기 바깥에 있는 존재들을 순치시키는 것이다.

순치(馴致)

길들이다, 또는 목적인 상태로 차차 이르게 함을 의미

세계의 불투명성, 우연,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시간 등을 이성 안으로 내부화하는 것이 근대 철학의 성격이다.

근대 철학의 주안점

이 세계의 불투명한 것을 이성의 빛으로 명확히 하려 한다.

불가해한 것,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즉 이성에 대해 타자를 형성하는 것을 이성의 범위 안으로 순치한다는 점에서 근대 철학은 이성 중심주의다.

근대에도 이미 근대성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시류를 역행하는, 탈근대적인 사유도 있었다.

흙은 보편성, 객관성, 필연성 등 전통학자가 중시하는 개념이 인간이 만들어낸 자의적인 개념임을 강조했다. 계몽사상을 무조건 합리성, 이성과 연관 짓기 쉽지만, 프랑스 계몽사상에는 이성과는 다른 ‘욕망론’이 있다.

근대에도 탈근대적인 사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이성으로 타자를 순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데카르트(Descartes, 1596~1650)

프랑스의 물리학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 합리론의 대표주자이며 본인의 대표 저서 『방법 서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근본 원리를 확립했다.

데카르트는 사물의 본질은 공간적 외연에 있다고 보았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신과 영혼을 제외한 우주의 모든 사물은 완벽하게 기하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

우주를 기하학적으로 파악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은 이성으로 타자를 내부화하는 사유의 전형을 보여준다.

라이프니츠(Leibniz, 1646~1716)

독일의 철학자, 수학자. 신과 자연, 목적론과 기계론, 정신과 물질, 선과 악 등을 조화적, 화합적인 관점에서 통합하려고 기도했다. 그의 모나드론은 독일 철학계에 방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학에서는 미적분법을 확립하였다.

라이프니츠의 예정 조화설

우리가 아는 모든 행동들은 신이 우주를 만들 때 이미 예정한 조화 안에서 펼쳐진다는 이론

라이프니츠의 주장 : 아름답고 조화롭게 질서를 만드는 신의 작업은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알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은 신이 보장해준다. ↔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신을 알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18, 19세기에 이르러 ‘신’이라는 것은 철학적 담론에서 사라졌지만, 이성 중심주의는 여전히 남아서 영향을 끼친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독일 프로이센 출신의 철학자.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피히테, 셸링, 헤겔로 이어지는 독일 관념 철학의 기초를 놓았다. 주요 저서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있다.

18, 19세기 근대 철학의 이성 중심주의의 예: 칸트가 말하는 종합(synthesis) 또는 구성(construction)

칸트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리 감각적 경험을 해도 이성의 종합 또는 구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감각의 다발에 불과하다.

감각의 다발이 양과 질, 관계, 양상과 같은 이성의 틀 안에 종합되어야 감각적 경험으로 성립하고 인식된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관념 철학을 대표하는 독일의 철학자. 정신이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자연·역사·사회·국가 등의 현실이 되어 자기 발전을 하는 체계를 종합하였다.

헤겔은 칸트가 말한 종합 또는 구성 개념을 노동(Arbeit) 개념으로 바꾼다.

헤겔이 말하는 노동(Arbeit)

인간 주체가 사물에 작용하여 사물을 변형시키고, 그 변형이 인간 자신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

대상과 내가 교류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종합, 구성 개념보다 헤겔의 노동 개념은 훨씬 역동적이다.

근대 철학의 거장들은 우주의 복잡성, 다양성, 불투명성을 인간 주체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학습 요약

- 우연성, 시간, 인생의 불투명성 등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고 설명하려 한 점에서 근대 철학은 이성 중심주의다.
- 근대 자체 안에도 이성적 개념으로만 설명하거나 쉽게 일반화할 수 없는 근대성의 타자가 존재했다.
- 근대 철학은 우주의 복잡성, 다양성, 불투명성을 기하학, 인간 주체의 구성 작용 등 인간의 이성 안에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주의다.

인문 퀴즈

1. 영국 경험론의 시조인 로크의 경험론적 인식론을 계승, 철저한 경험론의 입장에서 귀납 논증과 인과 관계의 필연성을 비판한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이자 역사가로, 『인성론』, 『인간 오성에 관한 연구』의 저자이기도 한 인물은?

- (1) 데이비드 흄(David Hume)
- (2)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 (3)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 (4)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인문 퀴즈

2. ‘이것’은 철학의 사조로, 본능이나 감각적인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지닌 사고와 논리 등을 통해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서구 근대사회에서 현저하게 발생하였다. 다음 중 ‘이것’에 속하는 철학자들로만 올바르게 묶인 것은?

- (1) 플라톤-칸트-니체
- (2) 소크라테스-로크-헤겔
- (3) 라이프니츠-칸트-헤겔
- (4) 라이프니츠-데카르트-니체

인문 퀴즈

3. 칸트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리 감각적 경험을 해도 ()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감각의 다발에 불과하고 주장하였다. 다음 보기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미적인 감상
- (2) 종교적 체험
- (3) 지성의 총동
- (4) 종합적 인식

정답

1. (1) 2. (3) 3. (4)

2. ‘이것’은 이성주의, 관념론으로, 니체는 실존주의, 로크는 경험론으로 올바르지 않음

3.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내세운 선천적 종합판단(synthetic a priori)의 개념

근대철학 핵심 가이드: 이성의 시대를 열다

강사 : 이정우

발행 :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